

<http://dx.doi.org/10.17703/JCCT.2023.9.2.99>

JCCT 2023-3-12

##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 The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정영미\*

Jeong Yeong Mi\*

**요약** 본 연구는 목적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한국아동패널 12차년도(2019년) 자료를 토대로 기초통계분석으로 주요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따라 3단계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 학교적응, 자아탄력성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력이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잘 대처하게 해 줌으로써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가게 하는 중요한 매개변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는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주요어** : 아동, 학업 스트레스, 학교, 적응, 자아탄력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ldren's academic stress on school adaptation and to verify whether ego-resilience plays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e data from the 12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s Panel (2019),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main subjects and the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the main variables were confirmed through basic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variables. In addition, to examine whether ego-resilience mediated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chool adaptation, a three-step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following the procedure of Baron and Kenn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children's academic stress, school adaptation, and ego resilience were all significantly correlated. The higher the academic stress, the lower the ego-resilience and school adaptability.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ego-resilience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Ego resilience in the academic stress situation means that it acts as an important mediating factor to flexibly adapt to school life by objectively grasping and coping with the stress situation. Therefore, we need to recognize the need for flexible and resilient individual characteristics so that children can reduce academic stress and adapt well to school life, and seek active interest and intervention plans.

**Key words** : Child, Academic stress, School, Adjustment, Ego resilience

\*정희원, 경남도립거창대학, 아동보육복지과 초빙교수  
접수일: 2023년 1월 1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23년 3월 8일

Received: January 17, 2023 / Revised: February 28, 2023

Accepted: March 8, 2023

\*Corresponding Author: mongsil57@hanmail.net

Dept. of Child Care & Welfare, Gyeongnam Geochang Univ,  
Korea

## I. 서론

아동기에 있어서 학교는 생활의 중심이 되며, 아동이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과 인지적 능력을 습득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소이다[1]. 아동은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 및 가치를 내면화 하게 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된다[2]. 아동의 학교 적응은 청소년이나 성인기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3].

학교에서 적응이란 다양한 학교환경을 자신의 요구에 맞게 변화시키게 되면서 학교생활 규칙을 준수하고 교사나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4]. 학교적응을 잘 하는 아동은 학습태도나 동기가 긍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하게 되나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아동은 학습성취 저하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상의 이유로 결국은 학교를 중도탈락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5]. 이에 아동이 학교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적응에 부정적,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6].

아동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학업 스트레스가 꼽히고 있다[7].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생활과 학업을 수행해야 하는 요구에 대처하면서 경험하는 정신적 부담감과 불안 우울 등의 부적응적 심리상태이다[4]. 학업 스트레스가 커지면 아동들은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경험하게 되어 심리 및 행동 부적응으로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경우 아동들은 학교적응을 원만히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들에게 학업 스트레스는 내재화·외현화 문제 행동을 일으켜 학교적응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9-10].

반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개인내적 변인으로 자아탄력성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능력으로 불안을 낮추고 세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참여하게 된다[11]. 특히, 생애발달 중 초등학교 시기는 청소년기로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학교 및

다양한 사회적 맥락을 통해 이전시기와는 다른 질적 경험을 하게 된다[12]. 초등학교 고학년은 이전보다 빠른 사춘기로의 이행으로 신체적 변화와 입시와 관련된 학업 스트레스 등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학령기 후반 아동들이 자신이 겪는 어려움이나 사건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겨내려는 역동적인 적응과정은 더욱 중요하다고 보겠다[13]. 실제,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보이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16]. 즉 아동들은 자아탄력성을 통해 학업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여 건강한 학교적응을 하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교적응에 가장 부정적·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동안 학업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고등학생이나 특정대상의 아동(아동학대, 빈곤, 학습장애 등)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어 왔다[17-18]. 그러나, 아동의 발달적인 측면과 교육 환경적 측면을 고려했을 때 시기별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아탄력성을 매개변인으로 그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 모형은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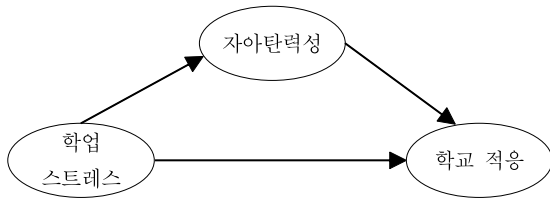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ure 1. Research model

##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150명의 신생아 가구를 표본으로 매년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아동패널 조사를 활용하였다. 2022년 2월 오픈된 12차년도(2019년) 자료 중 학업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문항 모두에 성실하게 응답한 아동 1397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표1에 보인 바와 같이 전체 아동 중 남학생은 715명(51%), 여학생은 682명(49%)이었고, 아동의 평균 월령은 136.42개월이었다. 아동 부모의 평균 연령은 모 42.08세, 부 44.55세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research subjects

구분	내용	빈도(%)
아동성별	남	715(51%)
	여	682(49%)
아동월령	아동 평균 월령	136.42개월
부모연령	어머니 평균 연령	42.08세
	아버지 평균 연령	44.55세

## 2. 측정도구

### 1) 학업 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에서 사용된 학업 스트레스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등 총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  $\alpha$ 는 .788이었다.

###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Block & Kremen(1996)이 개발하고 권지은(2003)이 수정·보완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내 친구에게 너그럽다.’ 등 총 14문항으로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848이었다.

### 3) 학교적응

학교 적응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민병수(1991

년)가 개발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진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1문항이며, 4점 Likert척도로 평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alpha$ 는 .900으로 나타났다.

## 3. 자료분석

학업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학교 적응 변인들의 단편적 효과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니라 변인들의 통합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의 학교 적응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요인인 학업 스트레스와 아동의 심리적 특성인 자아탄력성 각각의 효과 외에도 아동의 학교 적응과 학업 스트레스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동시적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첫째, 기초통계분석으로 주요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주요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확인하였고 변인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의 절차를 따라 3단계 걸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주요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는 표 2에 보인 바와 같이 학업스트레스 평균은 2.131( $SD=.850$ ), 자아탄력성은 3.003( $SD=.425$ ), 학교 적응은 3.186( $SD=.395$ )로 나타났다. 왜도는 절대값 2, 첨도는 절대값 7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주요변인 간의 기술통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업 스트레스	2.131	.850	.476	-.266
자아탄력성	3.003	.425	.003	.183
학교 적응	3.186	.395	-.107	.168

2.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주요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표3에 보인 바와 같이 첫째,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 $r=-.280, p<.01$ ) 과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r=-.366, p<.01$ )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 $r=.545, p<.01$ )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주요변인 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between major variables

구분	1	2	3	4	5	6	7
1	1						
2	-.280**	1					
3	-.399**	.483*	1				
4	-.250**	.396*	.597*	1			
5	-.284**	.529*	.577*	.609*	1		
6	-.258**	.377*	.476*	.461*	.458*	1	
7	-.366**	.545*	.801*	.799*	.786*	.813*	1

(1:학업 스트레스, 2:자아탄력성, 3:학습활동, 4:학교규칙, 5:교우관계, 6:교사관계, 7:학교적응 전체)

3. 아동의 학업스트레스와 학교 적응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4에 보인 바와 같이 Durbin-Watson 지수는 1.87로 2에 가까워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자료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on과 Kenny의 절차에 따라 1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 $\beta=-.280$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2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 $\beta=-.366$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마지막 3단계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 $\beta=-.231$ )에 자아탄력성이 학교 적응( $\beta=.480$ )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요변인 매개효과  
Table 4. Mediating effect of major variables

단계	변인	$\beta$	$T$	$R^2$	$F$
1단계 독립→매개	학업 스트레스→자아탄력성	-.280	-10.903***	.079	118.868***

2단계 독립→종속	학업 스트레스→학교 적응	-.366	-14.686***	.134	215.671***
3단계 독립, 매개→종속	학업 스트레스→학교 적응	-.231	-10.259***	.346	368.738***
	자아탄력성→학교적응	.480	21.262***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5에 보인 바와 같이 Z값이 -9.605( $p<.001$ )로 절대값이 1.96보다 크기 때문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5. Sobel 검증을 통한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  
Table 5. Verification of the significance of mediating effects through Sobel test

경로	Z
학업 스트레스→자아탄력성→학교적응	-9.605***

IV. 논의

본 연구는 목적은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 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학교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학업 스트레스는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학업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은 낮아졌다. 초등학교 6학년 대상 연구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학교적응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19].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학교의 전반적인 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며 만족스럽지 못한 학교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교육열로 인해 아동들의 학업 스트레스는 점점 더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학업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학교상황에서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줌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가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업 스트레스는 자아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간의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과 같은 결과이다[20]. 이것은 아동들의 자아탄력성 증진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상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근거가 되고, 자아탄력성 증진을 통해 아동들은 학업 스트레스를 조절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셋째,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자아탄력성은 부분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이 조절효과와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결과가 이를 뒷받침 한다[8,4]. 즉 자아탄력성이 높은 아동들은 학업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잘 대처하게 됨으로써 학교생활에 유연하게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가장 긍정적 · 부정적 요인으로 꼽히는 학업 스트레스와 자아탄력성을 연구 변인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고,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에 자아탄력성이 유연하게 대처하게 해 주는 변인으로 작용함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 부정적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아동의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유지해 나가는데 자아탄력성이 긍정적인 매개 작용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우리는 아동이 학업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탄력적인 개인의 특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방안 마련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단편적인 부분만을 검증하여 제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해 봄으로써 학교적응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 아동들의 학교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J. WOO. "The Effects of Parents' Academic Achievement Pressure and Children's Academic Stress on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 13, No. 4, pp. 61-73, 2021. DOI : 10.36431/JPE.13.4.4
- [2] J. M. Kim and S, Y, Hong. "Examining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School Readiness, Academic Achievement,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JOEC)*, Vol. 25, No. 3, pp. 507-525, 2019. DOI : 10.24159/joec.2019.25.3.507
- [3] M. S. Ha. "The Relationship Between Latent Class according to the Strengths and Difficulties of Early School-age Children, School Adjustment, and Influence Factor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32, No. 4, pp. 183-202, 2021. DOI:10.20972/kjee.32.4.2021120.183
- [4] J. H. Kim. S. B. Kim and I. K. J. "The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the school adjustment in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5, No. 4, pp. 241-269, 2014. DOI : 10.14816/sky.2014.25.4.241
- [5] Y. M. Oh and I. B. Heo. "The Mediating Effect of Self-compa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Vol. 24, No. 2, pp. 59-74, 2016. DOI:10.35151/kyci.2016.24.2.004
- [6] H. K. Chae. "Relationship with Mother's Achievement Pressure, Parenting Behavior, Child's Grit and School Adjustm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2, No. 6, pp. 2937-2948, 2021. DOI: 10.22143/HSS21.1.2.6.206
- [7] Gall, T. L., Evans, D. R., and Bellerose, S. "Transition to first-year university: Patterns of change in adjustment across life domains and time,"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Vol. 19, No. 4, pp. 544, 2000.

- [8] S. J. Kim and S. H. Kim.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Vol. 22, No. 2, pp. 49-70, 2015.
- [9] S. Y. Moon and J. H. Kang. "The Effect of Children' Academic Stress on Problem Behavior: The Moderating Effect of Friendship Quality,"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pp. 3323-3339, 2013. DOI:10.15703/kjc.14.6.201312.3323
- [10] J. Y. Lee and K. A. Lee. "Individual and Familial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16, No. 2, pp. 261-276, 2004.
- [11] Block, J., and Block, J. H. "California child Q-set," *Developmental Psychology*, 1980.
- [12] H. Y. Shin and J. H. Kim.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Daily Hassles and Self-Resilience on their Happines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9, No. 6, pp. 837-846, 2020. DOI : 10.5934/kjhe.2020.29.6.837
- [13] Cicchetti, D., and Garmezy, N. "Prospects and promises in the study of resilienc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Vol. 5, No. 4, pp. 497-502, 1993.
- [14] Block, J., and Kremen, A. M.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0, No. 2, pp. 349, 1996.
- [15] Y. M. Jeong.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 on Children's Life Satisfaction : Mediating Effect of Ego Resilienc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3, pp. 137-142, 2022.
- [16] Ndeti, D., Mutiso, V., Maraj, A., Anderson, K., Musyimi, C., Musau, A., and McKenzie, K. "Towards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social factors and ego resilience among primary school children in a Kenyan setting: A pilot feasibility study," *Community Mental Health Journal*, Vol. 55, No. 6, pp. 1038-1046, 2019.
- [17] H. Y. Shin and J. H. Kim. "The Effect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s Resilience and Teacher-Student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s of Teacher-Student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 28, No. 4, pp. 333-343, 2019. DOI:10.5934/kjhe.2019.28.4.333
- [18] Cicchetti, D., and Valentino, K. "An ecological transactional perspective on child maltreatment: Failure of the average expectable environment and its influence on child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ume Three: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129-201, 2015.
- [19] M. J.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ademic Stress, Ego-Resilience, Social Support and Their Adapt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egu University, 2009.
- [20] SS. L. Lee and S. J.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resilience o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Adaptation," *Education Review*, Vol. 30, pp. 85-113, 2011.